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코로나19 속에 다녀온 고향 방문길

지금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방역과 관리로 긴장과 경계 상태에 있다. 심각 단계로 상향되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처음에는 '우한(武漢) 폐렴'이라고 부르다가 중국 특정 지명이어서 중국 혐오감을 보장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고 공식적으로 개칭했다. 그러다가 다시 이름이 너무 길었던지 지금은 정부와 언론에서 '코로나19'라고 개명해서 부르고 있다.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 20일 우한 코로나 관련 공식 보도자료의 제목을 '대구 코로나 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가동'이라고 붙였다. 이를 놓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가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는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며 코로나19라고 고쳐 부르더니, '대구 코로나'라는 말은 정부가 먼저 쓴다"며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병명 앞에 '대구'를 붙여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 지역주의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나 소셜미디어상 도는 말 중에 '대구 폐

렴' '대구 코로나' 등과 같은 말이 가뜰이나 어렵고 힘든 대구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듯 '대구 폐렴'도 없다. 코로나 19만 있을 뿐 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보도자료 제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대구 코로나 19'라는 명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나왔다.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상처를 받은 대구 시민과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전염병 이름을 두고 벌어진 일이다.

내가 자주 반복하면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말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단체나 행사 이름이나 명칭 국가 명칭이 붙는다면 이미지와 명예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남에게 인정도 받아야 하고, 자기에 걸맞는 명예와 이미지가, 평판을 갖게 되고 지키고 싶어 한다. 나쁜 명칭, 이상한 지역, 혐오스러운 나라라는 이미지들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쪽 지방 서남해 지역, 굴비로 유명한 영광을 가기 위해서 심야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새벽에 도착했다. 어느 때와 달리 갈 때와 올 때 고속버스 좌석은 절반도 차지 못했다. 필요 불가결한 일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민심의 표현이다. 고향 집에서 청소와 필요한 일을 마치고, 버스 타러 가는 길 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등 산소에 성묘했다. 성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다. 밭에서 농사일을 하시던 마을 주민 부부의 순박한 얼굴을 보면서 나는 안부 대화는 맑고 서늘한 청량감(淸涼感)을 주었다.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광주에서 문중(門中) 논(畝)과 문중 산(山)에 관한 일로 만난 일가 동생과의 대화는 참 힘들었다. 정직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두 번째 만남이었다. 진실이 거짓을, 정의가 불의를 상대한다는 것, 설득하고 이겨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돈에 관련된 일이라서 자칫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고, 가지 말아야 할 소

송으로 갈 수도 있다. 절반의 해결을 하고 돌아왔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이 되었다가 다시 뒤틀리는 형세이다.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와 신천지(新天地) 이만희 총회장(교주)의 출생지, 성지(聖地) 경북 청도의 대남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염병을 옛날 같으면 돌림병이라고 부르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怪疾), 죄 지은 사람들을 혼내는 하늘의 벌(罰)로 생각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의학적 지식과 역학적(疫學的) 대응이 놀라운 시대이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1일 신도들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별편지'를 보내서 '급변 병마(病魔)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짓입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미혹에서 이깁시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합시다'라고 말했다.

과학과 신앙의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문의 자유, 진리탐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중대한 자유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公共)의 안녕질서와 복지, 행복 추구권 등 헌법적 상위의 근본가치에 위배될 때에는 국가는 적절한 개입과 통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신천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자가 격리와 외출 자제 등 범 국민적인 자발적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비상상황 슬기롭게 극복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900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르다. 25일 오후 2시 기준 총 확진자는 893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9명이 됐다.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가 전체의 68.8%다.

정부는 전파 규모가 크지만 대구·경북(TK)과 특정 종교 집단에서 코로나19가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격리 등 봉쇄 전략과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급증했으나 신규 환자가 생기는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TK에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하면 사태를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직접 방문, 대구 시청에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군·경 투입은 물론 민간 의료인력의 지원을 포함해 범국가적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K에서의 방역 성공 여부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가늠할 결정적 변수라는 판단이 엮여있다. 확진자 증가 흐름이 TK 경계를 넘는 순간 전파력이 큰 코로나19의 특성상 견딜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

감염병 급증으로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4·15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태 심각성 경고 위기의식이 커졌다. 결과론적으로 평가하기 쉽지만, 선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매우 민감한 이슈들이다. 머뭇거리려는 비판에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게 연연 현실이다. 국가 전체의 지혜를 모아 최적의 결정을 도출해야 할 이유다.

경각심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으나, 과도하게 공포감을 갖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도 없어야 한다. 가짜 정보나 악성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않도록 당국과 시민 모두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대하여

지금 세계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상이다. 감염으로 인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쏟고 있다.

소방관에서도 기침, 발열, 호흡곤란 환자 정보 단계에서부터

보건소 등과 유기적인 체제로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수이지만 몇몇 사람들은 감염되는 것을 운명으로 생각한다. 결별 사람은 결별 안 결별 사람은 안 결별한다는 운명론적 사고관이다.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화재나 교통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도 지킬 것은 지키고 살필 것은

살피야 화재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자명한 일이다.

개개인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각종 매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 발열, 호흡기증상 발생 시 1339 등을 통해 상담을 해야 한다.

택시, 버스 기사 등 많은 사람과 상대하는 사람은 차량 내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상담을 통해 조치를 받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나만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심한다는 생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안전사고가 나 하나만이 안전수칙을 지켜서 보장될 수 없으므로 서로서로 철저한 예방수칙을 지켜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래본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